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보수 진영의 유력 대권 후보로 꼽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황 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라며 '자유한국당이 국민에게 시원한 답을 드릴 때'라고 입당 배경을 설명했다.

애석하게도 그의 메시지는 울림이 없었다. 무엇보다 '왜 황교안인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못하더라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곡되거나 과장되게 밝히지 못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국정 농단 책임에 대한 소신이 있거나 고뇌에 찬 답변도 없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보는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 생각한다"며 동문서답을 했다.

종교칼럼



강한권
광주서정교회 담임목사

2019년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다섯 해가 되는 해입니다. 2019년 '세월호 달력'에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우리 아이들 마음이 담긴 들쭉이 피어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를 향해 무엇인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전하고자 하는 편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럼 이제부터 감사의 들쭉 향기가 담긴 아이들의 편지를 돌려 드리겠습니다.

깜깜한 바다에서도 꺼지지 않고 반짝이던 촛불 덕분에 마음 따뜻했고 위로가 났어요. 반짝이는 별로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영하의 날씨와 뜨거운 태양이 머리 위로 폭포 쏟아져 내리는 폭염 속에도 뚜벅뚜벅 걸어주셨던 발걸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보수의 재건과 통합은 가능한가

이제 첫발을 내딛는 정치 신인인 황 전 총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적기에 말할 수 있어야 정치인의 메시지는 생명력을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황 전 총리의 첫 행보는 '반기문 2'를 연설했던 정도로 준비가 약했다. 그럼에도 황 전 총리의 입당은 한국당 당권 경쟁의 판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 향후 한국 보수의 미래와 관련해 몇 가지 의미 있는 화두를 던진다.

첫째, 보수 재건의 가능성 여부다. 한국 보수 세력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그리고 2018년 지방 선거에서 '궤멸적 참패'를 당했다. 작년 지방 선거 직후 진보 언론 매체의 한 기사는 "보수는 비겁하고 교만하고 무지했기 때문에 참패했다"고 분석했다. 단언컨대, 보수는 용기 있게 참회하고 겸손하며 실력을 쌓아야 재건될 수 있다.

무엇보다 '보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국민 70%, 국회의원 78.3%(234명), 헌법 재판관 전원이 합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인정하고 참회해야 한다. 권력 사유화와 국정 농단으로 치욕적인 탄핵을 당한 박 전 대통령을 무조건 감싸서

는 안 된다. 보수 궤멸의 책임을 물어 비판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투쟁만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보수 우파 정당들은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야 재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81조 2항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됐다면 황 전 총리는 대통령을 잘 못 보좌했다고 볼 수 있다. 황 전 총리는 이를 정치적 업보로 삼아 '도로 친박당' '박근혜 시건2'로 회귀하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야 한다. 그래야 보수가 산다.

둘째, 보수 통합의 문제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치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룰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자유, 성장, 경쟁, 효율, 안보와 같은 보수의 가치 못지않게 평등, 분배, 투명, 분권, 평화 등 진보의 가치를 중시한다. 따라서 보수는 진보의 가치를 무조건 배격하지 말고 보수의 시각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포용적 진보 우파'의 길을 가야 한다. 그래야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 내 외연을 확대할 수 있다.

'반문 연대'는 보수 통합의 가치가 아니다. 전략에 불과하다. 통합은 전략이 아니라 정신으로 하는 것이다. 통합은 혼자자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통합은 과거에 얽매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향해 가는 것이다. 통합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력 있는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

셋째, 계파 정산 여부다. 김무성 전 대표는 황 전 총리의 전당대회 참여를 반대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이 (전당대회에서) 대선 전초전을 앞당겨 치를 경우 그 결과는 또 분열의 씨앗을 잉태한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그러나, 한국당 전당대회가 친박과 비박 간에 골육상쟁의 내전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홍준표, 김무성, 오세훈, 황교안, 김태호 등 모든 후보들이 출마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승리한 새 당 대표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내년 총선을 이끌어 가야 한다.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실패한 보수에 대해 국민은 아직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 민심은 늘 변화무쌍하고 두렵고 무섭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社說

한국당 5·18 왜곡 조사위원 추천 철회하라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추천한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3명을 둘러싸고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이들 가운데 2명의 경우 5·18을 왜곡하는 극우 세력의 주장을 대변해 온 인사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이들을 추천한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는 사람들도 많다.

광주시를 필두로 5·18기념재단 등 광주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도 최근 잇따라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3인은 5·18 진실을 왜곡과 유언비어로 폄하할 소지가 다분하고 진상 규명 조사를 오히려 방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한국당은 3인에 대한 추천을 즉각 철회하거나 차라리 추천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문제가 된 추천 인사 가운데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지난 1996년 잡지 '월간조선'에 '김중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과장'이란 제목의 기사를 싣고 5·18 당시 계엄군의 화염방사기 사용, 성폭행

전남 관광 경쟁력 추락 보고만 있을 건가

최근 전남의 관광 경쟁력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들어간 전남의 관광지가 8년 사이에 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게다가 전남도가 섬 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데도 전남 지역 섬은 한 곳도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관광공사가 펴낸 '2019~2020 한국관광 100선'에 따르면 전남권에서는 순천만습지, 여수 엑스포해양공원, 담양 죽녹원,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강진 가우도, 보성 녹차밭, 해남 미황사 등 불과 7곳만이 선정됐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한국관광 100선'은 정부가 한국인이 꼭 가 봐야 할 우수 관광지 100곳을 2년에 한 번씩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한국관광 100선이 처음 시행된 2013~2014년 15곳에 달했던 전남권은 2015~2016년과 2017~2018년 각각 9곳으로 급감했다가 이번

에 7곳으로 줄어 들었다.

문제는 탈락한 관광지 대부분이 전남도가 주력하고 있는 섬 관광지라는 점이다. 여수 거문도, 고희 나로도, 완도 보길도 세연정과 청산도, 진도 운림산방, 신안 홍도와 중도 등 섬이 7곳이나 된다. 여수 오동도와 신안 중도·홍도 등은 총내차량 중 두 차례 선정되기도 했으나 이번에는 탈락했다.

반면 서울은 4곳에서 10곳으로, 경기도는 9곳에서 12곳으로, 부산은 2곳에서 6곳으로 크게 늘었다.

전남 관광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은 변화무쌍한 관광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탓이 크다. 기존 자연 경관 위주에서 스토리텔링과 콘텐츠로 바뀌고 있는 관광의 흐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 전남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선 지자체 차원의 독특한 콘셉트 개발과 SNS 활성화 등 체계적인 홍보 마케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 프로젝트 실행

트렌드 위치 정보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은 마케팅 활동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대형 소매체인에서 한 여름에 구매품목을 분석하여 집으로 유아용품 쿠폰을 보냈고 부모로부터 임신을 부추긴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런 데 알고 보니 임신이 사실이었다고 데이터가 부모보다 먼저 임신을 알고 있었다는 사례로 보도되기도 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지방 정부의 가장 막중한 책무인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 예방 시스템 혁신' '광주 인프라 100년 프로젝트'와 생활 속 '안전문화 3·3·3 운동' 통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광주 만들기를 추진한다.

재난 예방 시스템은 재난 시설물 상시 모니터링과 지정일 안전 점검 결과, 사회·자연재난, 각종 사고 현황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월별·계절별·장소별로 사고 유형을 분석하여 매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안전 사고 예보제를 시행한다.

특히 얼마 안 남은 설 명절 대비하여 지난 5년간 설 명절에 발생한 주방 안전 사고, D-1 교통 사고 등을 지역·구간·일차별 교통사고, 화재사고 사례의 데이터

를 분석하여 알려준다면 귀성객과 시민들이 위험 노출 빈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전국 8000여 개의 구간 중 위험 운전이 잦은 곳을 분석하여 21개의 위험 징후 구간을 찾아내 해당 구간에 대한 제한 속도를 낮추고 교통 인프라를 개선한 결과 위험 운전이 40% 이상 감소되었다고 한다.

이용설 시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광주 인프라 100년 안전 프로젝트는 1중·3중 법적 시설물, 상·하수도 등 노후화된 도시 기반 시설을 데이터화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최적의 유지 보수 시점과 중장기 소요 비용 등을 산출하는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유지 관리 시스템 구축이다.

작년 12월에 발생했던 백석역 우수관 파열과 KT 화재사고를 보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땅속 기반 시설은 부지불식간에 시한 폭탄이 되어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지하철 2호선 착공 등 급속한 시설 공사물 앞두고 있는 지금, 100년을 내다보는 최적화된 인프라 관리방안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재난과 사고는 예측불허의 모순으로 우리 곁에 상존해 있다. 위험으로부터 스

스로를 보호하는 일의 주체는 자신이다. 시에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늘 안전을 의식하고 생활하도록 가정·학교·직장에서 교육·점검·신고로 활성화하고 홍보·지원·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범시민 안전 문화 3·3·3운동을 펼치고 있다.

안전문화 3·3·3운동의 전 지역 확산을 위해 365 무사고 무재해 안전마을, 안전학교, 안전기업 선정과 상무지구, 송정역 등 도심권 일부를 시법적으로 안전 모범 지역(zone)으로 지정하는 등 다각적으로 시민 안전 의식 제고와 안전 문화 생활화 실천을 위해 관련 담당자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바쁜 그들이 있어 지난해 안전 한국 훈련, 국가 안전 대진단, 비상 대비 훈련 3개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성공한 도시의 핵심은 행복한 시민에 있다. 행복은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

마음을 흔흔하게 담쳐 줄 설 명절이다 가오고 있다. 경제 상황 침체로 타지에서 한겨울을 더 추게 보냈을 귀성객들이 고향에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 친지의 안부를 묻고 안전하게 설 명절을 날 수 있도록 우리의 안전 지킴이 활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 밝혀지는 것과 책임자 처벌, 안전 사회가 건설되는 것을 저희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볼게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이 빠진 아픔과 슬픔은 팽목항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참사 현장이었던 맹골수도와 주검으로 돌아와 처음 안치된 땅 팽목항을 기억해서 사리지게 하는 일, 지도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요구가 희생자 기립 공간 및 기억 이름 공간으로 이어져 팽목항에 4·16 기억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참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를 잊어버리는 일입니다. 제발 우리들 기억해주세요.

"기울어진 봄/ 기억합니다!! 뒤집어 진/ 물살에 시달리는/ 사연 알지요// 캄캄한 물결 사이/하얀 꽃밭오리// 그때 미안합니다/ 행동했겠다고 다짐했던/ 세월의 문장 벌써 잊었는지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문단/ 전하는 기다림의 등대/ 기억의 벽에 기대어 있네요// 더 이상 진실의 파도 소리/ 잠재우지 말아요// 주검 안치소의 통곡/ 허물어 버리지 말아요// 이제 서러운 바람길 따라/ 숨쉬는 것조차/ 살며시 접어 보냅니다." (팽목항에서 보낸 편지' 전문)

無等鼓

조선 시대 관직은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등급으로 품계를 나눴다. 이 중 정 1품은 현재 국무총리급에 해당하는 직위로 영의정·좌의정·우의정 등 삼정승이 이에 해당된다. 이어 현대인들이 사극 등을 통해 귀에 익은 직위로는 정2품에 판서와 대제학, 종2품은 참판·관찰사·내금위장·수군통제사 정도일 것이다. 정3품 대 표직은 도승지, 종3품에는 절도사 등이 있다.

이 밖에 많은 관직들이 있지만 역사학자들에게 조선 시대 최고 요직을 하나 꼽으라면 정1품의 정승보다는 정5품의 이조전랑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이조전랑(吏曹掾郞)은 인사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조전랑은 정5품 정랑과 정6품 좌랑을 합쳐 부른 말이다. 품계는 낮았지만 각 부서 당하관(정3품 이하 관원)의 천거, 언론 기관인 삼사(사헌부·사간원·홍문관)의 관리 임명, 자신의 후임 지명권 등을 가지고 있어 권한이 막강했다. 군이 따지면 현재의 민정수석 정도로 볼 수도 있다. 특히 이조전랑은 중재가 아니면 탄핵받지 않았고, 대부분 전랑을 거치면 정승이 될 수 있었다.

이처럼 인사권과 언론권을 동시에 장악할 수 있는 자리인 탓에 조선 시대에는 이조전랑 자리를 놓고 당파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이조전랑을 차지한 파벌은 집권 세력이 아닐지라도 꾸준히 주요 자리에 자신들의 사람을 심어, 후일을 도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언론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르내리는 공무원 직위가 있는데, 바로 5급 사무관이다. 청와대의 적자 국제 발행 압력(?)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인터넷 일식간 검색 1위에 오르면서 사무관이라는 용어를 모르는 이가 없게 됐다.

다. 별정직 5급인 청와대 행정관이 토요일에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냈다는(?) 의혹 보도도 있었다.

사무관은 5급 공무원으로서 정부 기관에서는 실무 공무원이지만 광역 지자체에서는 실무 부서 계장이며, 기초단체에서는 해당 부서 과장으로 간부 공무원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인지, 국가의 기강이 무너진 것인지, 이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할 뿐이다.

/최희중 사회부장 chaek@kwangju.co.kr

5품과 5급

光州日報		The Kwangju A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동 신형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체육관광부 220-0518 (FAX 222-0195)	문화체육관광부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자실 222-0195	(FAX 222-0195)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4	사건부 220-0693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정민권
광주시 시민안전실장